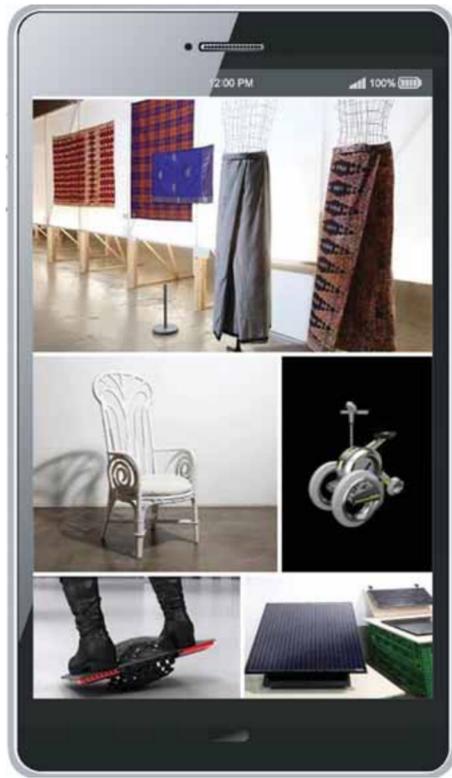


막내린 광주디자인비엔날레 놓친 작품 인터넷에서 만나보세요

‘구글 아트 앤 컬처’ 온라인 전시관 오픈
‘염소인간’ 등 본전시작 70개국 서비스

‘인터넷으로 즐기는 광주디자인비엔날레.’
지난 23일 막을 내린 2017 광주디자인비엔날레는 ‘FUTURE(미래들)’을 주제로 열려 전국에서 27만여명이 다녀가는 등 흥행에 성공했다. 바쁜 일정으로 혹시 전시 관람을 놓쳤다면 인터넷을 통해 디자인비엔날레 출품작을 만나보자.
2017광주디자인비엔날레(www.gdb.or.kr)는 구글의 온라인 전시 사이트인 ‘구글 아트 앤 컬처(Google Arts & Culture)’에 온라인 전시관을 24일 오픈했다.
‘구글 아트 앤 컬처’는 전 세계 문화 기관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예술작품, 문화유산, 유적지 등을 온라인에 전시해 누구나 문화를 감상할 수 있도록 구글이 운영하는 온라인 전시 사이트다. 웹사이트와 모바일 앱을 통해 전 세계 70여 개국 1500개 이상의 기관과 협력하여 총700만 점 이상의 예술작품, 사진, 동영상 등 다양한 자료를 전시하고 있다.
이번에 ‘구글 아트 앤 컬처’의 온라인 전시에서 만날 수 있는 작품은 1~4갤러리에서 열렸던 본전시 전시작들이다. ‘오래된 미래’, ‘미래를 디자인 하자’, ‘미래를 창업하자’, ‘아시아 더 퓨처’ 등 4개의 컨셉으로 진행된 전시에서는 ‘염소인간’ 등 다양한 작품들이 전시됐다.
화면을 클릭하면 전시 작품을 사진으로 만날 수 있으며 일부 작품은 동영상도 통해 작품을 입체적으로 감상할 수 있다. 또 전시를 기획한 큐레이터의 설명도 들을 수 있다.
구글 아트 앤 컬처 광주디자인비엔날레 웹사이트 www.google.com/culturalinstitute/beta/partner/gwangju-design-center-foundation.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문화전당 27~29일 3일간

뉴미디어·융복합 페스티벌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 ACC)은 오는 27~29일까지 뉴미디어·융복합 페스티벌인 ‘2017 ACT 페스티벌’을 개최한다.
ACT Festival은 전당 전체작업자의 한해 사업 결과물을 보여주는 예술과 기술이 융합한 콘텐츠들을 선보이는 행사이다. 장제작 센터 레지던시와 각종 프로젝트 랩에서 예술가들이 연구 및 개발한 작품들을 선보이는 동시에, 뉴미디어·융복합 분야의 트렌드를 보여줄 수 있는 외부 작가들을 초청하는 3일간의 페스티벌이다.
이번 페스티벌을 통해 전세계 5개국 21개팀이 예술극장과 문화창조원, ACT센터 스튜디오 곳곳에서 융복합 미디어아트를 선보인다. 특히 전당 아시아문화광장에 설치되어있는 미디어월(75x16m)을 통해 조태복 작가 등 방문창작자들이 전당에서 미디어콘텐츠를 3일간 상영한다.
또 세계 최대의 미디어아트 페스티벌 아크스 엘렉트로니카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레잔 칸토니와 레오나르도 크레센티의 작업을 만날 수 있으며 기술과 예술의 융합을 주제로 로봇, 인터랙티브 미디어 등 다양한 매체로 작업하는 미디어 아트 그룹 팀 보이 드의 작품도 선보인다. 전시와 쇼케이스, 퍼포먼스는 1일 기준만 20세 이상 일반인은 1만원. 초·중·고등학생, 미취학 아동에게는 무료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피아니스트 조연미 독주회

31일 유스퀘어 금호아트홀

피아니스트 조연미(사진) 독주회가 오는 31일 오후 7시 30분 유스퀘어문화관 금호아트홀에서 열린다. 이날 독주회에서는 고전시대와 인상주의 그리고 낭만주의를 대표하는 작곡가 베토벤, 라벨, 쇼팽의 작품이 연주된다.
조씨는 광주예고 재학 중 독일로 유학을 떠나 독일 예센 폴크방 국립음대에 입학해 디플롬(Diplom)과 문연주자과정(Konzertexamen)을 졸업한 뒤 피아노 솔리스트로 활동했다. 현재 광주피아노아카데미, 순천악회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광주예고와 순천대학교에 출강하고 있다.
연주 레퍼토리는 베토벤의 전기 작품인 ‘피아노 소나타 9번 Op. 14-1’, 라벨의 마지막 피아노 독주곡으로 그가 존경하던 바르코 작곡가 쿠프랭에게 헌정한 ‘쿠프랭의 무덤’ 등이다. 마지막 곡은 ‘장송 행진곡’이 포함돼 많이 알려진 쇼팽의 ‘피아노 소나타 2번’이다.
문의 010-6331-6834. /전은재기자 ej6621@kwangju.co.kr



10월의 마지막 주말을 ‘무등올림’과 함께

28~29일 전통문화관 등서
수연례·절혼제·음악회 열려

지난 7일 개막해 오는 29일까지 한달간 펼쳐지는 ‘2017무등올림’이 10월의 마지막 주말을 알차고 풍성하게 준비했다.
광주문화재단 전통문화관은 ‘2017무등올림’ 행사로 28~29일 이틀 동안 환갑이나 칠순, 팔순 등의 특정한 생일을 기념하는 잔치인 신부넛의 ‘수연례’ 등을 선보인다.
28일 오후 2시 너털마당에서 열리는 ‘수연례’는 실제 칠순·팔순을 맞이한 시민을 선정해 수연례를 배운다. 오후 3시에는 전통실내악단 율이 ‘무속음악’을 주제로 무고혼들을 위로는 하는 ‘절혼제’가 예정돼 있다.
오후 4시에는 토요일공연으로 너털마당에서 (사)국악협회 광주지회의 ‘전국국악대전 축하공연’이 열린다.



29일에는 오후 1시부터 ‘편백숲 속 힐링음악회’가 열린다. 트럼펫 김정태 씨, 트럼본 유성용 씨가 투란도트의 ‘공주는 잠 못 이루고’를 비롯해 ‘내마음의 강물’, 뮤지컬 캐츠의 ‘메모리’ 등 자연과 어울리는 공연을 선사할 예정이다.
체험 행사도 열린다.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솟대만들기, 단청그리기, 붓글씨·사군자그리기, 삼집 소원빌기 등 직접 전통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마련돼 있다. 문의 062-232-1599.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광주 90여개 문화예술단체 ‘동아리 페스티벌’

내일 5·18민주광장

광주문화재단은 28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7시까지 금남로 5·18민주광장에서 지역 문화예술동아리가 한 자리에 모여 한해의 성과를 공유하는 ‘2017생활문화 예술동아리 페스티벌’을 연다.
‘흥!겨워서~’ 주제로 개최되는 페스티벌에는 문화예술 10여개 분야, 90여개 단체, 1000여 명이 참여해 공연과 전시·체

험 행사를 선보인다.
본 행사(오후 2시~7시)는 문화나무의 난타, 벨리 공연, 성곡전통문화연구회의 방송댄스 등을 선보인다. 특히 대규모로 합주하는 ‘아리랑’, ‘임을 위한 행진곡’ 공연은 눈여겨볼 만 하다.
공연무대(12시~오후 4시)는 3개의 버스킹 존(ZONE)으로 구분돼 진행된다. ▲버스킹A는 소리사랑 문화예술단, 늘 푸른부부댄스팀 등 ▲버스킹B는 광주상

록수 통기타클럽, 조선대학교 풍물패연 합동 ▲버스킹C는 희망문화협동조합 연극여행, 한마을 포크댄스 연구회 등의 무대가 마련된다.
전시·체험은 42개 동아리 부스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위켄 고전무용 단동아리(임유애)의 고전무용 시연 및 체험, 영창타로(박창영)의 타로체험 등 다양한 부스가 마련돼 있다.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칠공예 작가 채지윤 개인전

담양 공예미술관 보임센 내달 5일까지

담양에 자리한 공예미술관 보임센이 레지던스 입주작가전으로 마련한 채지윤 개인전이 오는 11월 5일까지 열린다.
칠공예 작가인 채씨는 ‘몽요담(夢妖譚)’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에서 재료의 소재와 행위에 집중한 작품을 선보이고 있다.
작가는 칠공예의 견질작업 중 면사를 이용해 칠을 먹이는 과정에서 ‘코바늘뜨기’의 기법을 차용했다. 기물에 칠을 하고 이 칠이 서서히 변하며 조형적인 형태를 유지할 수 있게 한 점이 인상적이다. 작가는 이 과정에서 칠 작업이 ‘식물이 자라는 시간’처럼 느껴졌다고 한다. 채씨는 작가 노트에 “이번 작업은 자기 내면에 집중할 수 있는 행위로 형태보다 과정을 즐기고 잠시나마 잡다한 생각에서 벗어나는 자기 치유의 성격을 갖고 있다”고 적었다.
현재 보임센에는 박창민(디자인), 김종규(디자인), 임흥근(목공예), 채지윤(칠공예) 등 4명의 작가가 입주해있으며 릴레이 전시를 열고 있다. 문의 061-383-6473.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니트 상들리에’

각국 보청기 전문 A/S센터 상표등록 제2549335호

“인터넷 검색창에 **국제보청기** 를 쳐보세요”

-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자연의 소리...

국제보청기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중로 5가역 1층 **02) 765-9940**

신양파크호텔

가을이행

기간 · 9월 1일~11월 30일

객실예약 ☎ 228-8000

가을 패키지

스탠다드룸 ₩100,000 / 디럭스룸 ₩110,000

객실박 + 조식인 + 사우나인 (조식인 추가시, ₩15,000)